

미망의 골짜기 벗어난 자유인 삶 안내

마음의 자유를... 동광스님 지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의식의 장막을 제거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다가가는 길이다. 돈독한 신심은 참된 길을 가는 이의 좋은 반려가 되고 양식이 되며 마음의 가장 큰 재산이 된다."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이 펴낸 <마음의 자유를 찾아서>는 미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신앙생활과 일상을 소재로 '믿음은 부처의 아들' '고(苦)는 자기완성을 위한 채찍' 등 작은 주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알맞은 경전문구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문집이라고는 하지만 구성이나 내용은 차라리에세이에 가까워 읽기에 편하다. <여성불교사, 8천원>

현장답사·문헌고증 통해 차문화 조명

차문화 유적 답사기(9) 김대성 지음



지상에서 가장 좋은 물, 삼타수(三陀水)가 흐르는 속리산 법주사. 춘원이 은거하며 작품활동을 했다는 봉선사 다할실. 내로라 하는 차인들의 교유지였던 문길산 수종사. 이미 두 권의 차 문화유적 답사기를 내놓은 김대성(한국일보 편집위원)씨가 <차 문화 유적 답사기(9)>를 펴냈다.

상권과 중권이 원효봉을 일반에 알리고 다승으로서의 일연스님을 새롭게 조명하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차유적지를 담았다면, 이번 하권은 현장답사 및 문헌고증을 통해 우리의 차문화를 조명한 것이 특징. 다이를 비롯한 유적지, 다시, 문헌, 물 등 차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기록들을 현대 감각으로 새롭게 되살려냈다.

30년 기자생활의 필력이 내용을 알차게 하고 있다. <불교영상, 9천5백원>

전설과 설화로 되찾은 운주사의 어제

운주사 그 신비로운... 강형구 지음



천불천탑과 와불 등 조성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운주사. 운주사는 또 어떤 전설과 설화를 간직하고 있을까.

<운주사 그 신비로운 전설·설화>는 작가 강형구 씨가 사라져 가는 운주사에 얽힌 얘기들을 새로이 빚어 우리의 삶터에서 꽃피우게 한다. 도선국사의 창건설화와 운주도사의 창건설화, 종장터 전설과 임신 설화 등 운주사에 얽힌 전설과 설화, 현대사에 나타난 운주사의 모습을 문학적 열정과 재치로 묘사하고 있다.

또 경설 '설화의 허구성과 현실적 이해'에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고스란히 어디엔가 녹은 연장처럼 남겨져 있다는 교훈을 던진다. <삼과 지성, 8천7백원>

“자기반성으로 불황 탈출”

교계 출판사 편집장들 “불서출판 미래 밝다”

95년 이후 서서히 침체에 빠져든 교계 출판계가 IMF 관리체제 이후 제반여건의 악화로 계속되는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년도와 대비해 최고 60%까지 매출액 감소를 보인 출판사가 있을 정도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책을 읽지 않는 불교계 종로. 출판업계의 인일한 태도가 지금처럼 계속해 맞물릴 경우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교계 출판계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는가.

교계출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판경력 10년 이상의 교계 편집장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예상외로 한결같이 '밝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다만 교계 출판사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덧붙이고 있다. 쉽게 말해서 '밥 맛을 사람은 많은데 밥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뒤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명석(대원사, 남동화(불광출판), 이상옥(민족사) 편집장 등이 교계출판 미래를 낙관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좋은 책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모색과 실천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밖에도 치밀한 시장조사, 출판 전문인력 양성, 적극적인 홍보, 시대와 계층에 맞는 내용물의 포장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기획을 뒷받침하는 '뒷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한 권의 책을 내고 판매하기까지의 전후작업을 다음에 내는 책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명석씨

“잘못 만든책 부메랑 효과”



남동화씨

“독자 성향 파악 급선무”



이상옥씨

“바로 뛰는 홍보전략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태의연한 기획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한정된 필진으로는 더이상 독자들의 시선을 묶어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편집장들은 모두 “지금 기회”라고 말한다. 어려운 시대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불교에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그 틈새를 공략한다면 불교출판의 '호황'은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남동화 부장(39)은 “독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옛 형식을 그대로 답습한 출판을 강행(?)하는 출판계의 일방적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한 권 내지 못한 이유임을 출판인들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장은 “출판계와 독자가 서로의 필요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호흡이 이뤄지지 않는 한 좋은 책도, 좋은 독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사람이 기획과 편집, 교정, 홍보까지 도맡아 하는 현상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출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민족사 이상옥 부장(36)은 “안방에 앉아서 ‘우리 책이 좋다’고 외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바로 뛰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홍보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책을 펴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부장은 또 “출판전문화와 유통구조 개선이 구조적·장기적 문제라면, 이들 요건들은 출판사들의 노력에 의해 지금 당장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라며 “홍보는 물론 책 내용 또한 시대와 계층에 맞는 포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편집장들은 모두 “지금 기회”라고 말한다. 어려운 시대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불교에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그 틈새를 공략한다면 불교출판의 '호황'은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한명우 기자 <mw@buddhapia.com>

“바쁨 연속...佛法·詩 삶의 에너지”

첫 시집 '벼랑위의 깃발' 낸 전용찬 경감

“직장에서 구두끈을 풀 어불 잡시의 휴식도 없는 습가쁨의 연속이지만, 들꽃의 은은한 향기와도 같은 문학과 그 속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수 있는 불법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쓰러지고 말았을 것임니다.”



서울경찰청인회 회장인 전용찬 경감(행정자치부 치안정책보좌관)은 자신과 늘 함께하는 불법과 시를 삶의 에너지로 여긴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선(禪), 바람, 꽃, 구름, 파도' 등으로 채색되어 세상에 던져진다. 그의 첫시집 <벼랑 위의 깃발>은 자신의 체험과 보편적 삶을 불교사상으로 걸러 시어로 녹여내고 있다. 전경감에게 일상의 모든 것은 다 시다. 그러나 그 일상의 진리가 불법에 있음을 자신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사람의 세속적인 다름도/도덕, 윤리, 믿음의 분별도/모두/부처님의 섭리한 것들' <'부처님' 중에서>

그러면서도 '모름지기 선의 세계는/있음보다 있음은 지우는 무어에서/없음을 없음으로 가꾸는 물아까지/면역하는 일이다' <'선의 세계' 중에서>며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자성(自省)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운다.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in the Buddhist category.

구입문의: (02)737-0695

정인스님 '불교와 세계종교' 각 종교의 사상·발달 정리

<불교와 세계종교>(여래 권)는 각 종교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종교입문서 형식을 띠고 있어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의 발생에서부터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禪)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일본의 신도(神道) 유대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사마니즘과 켈트 등 신흥종교, 이슬람교의 이단인 아사신 등 세계의 비밀종교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각 종교의 개조(開祖)와 그들의 사상 및 교리발달사 등을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서술했다.

정인스님(불지사 주지)이 그동안 교단과 법회에서 강의한 불교학 개론과 종교사상을 정리해 엮었다.



Large advertisement for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by Iltaeksunim. Includes a list of books for sale with prices and a contact number.